



세종의 시대와 오늘의 답은꿀 찾기



세종대왕영정

#실용정책과 태평성대의 함수관계

조선왕조에서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의 시대는 어땠을까? 한글창제와 측우기와 천문학 관측기구, 농사를 위한 각종 계측 기구의 개발 등 '실용'이 빛난 그 시대는 과연 태평하고 성대했을까? 물론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겉출한 제왕을 중심으로 제도의 변화와 민생에 옹이한 신분문을 꿈꾸었던 제도권의 몸부림이 낳은 결과는 찬란했지만, 동시대의 가치관과 풍습 그리고 민생은 하루아침에 행복해지지 않았다.

아무리 성공한 혁명이라 해도 이전의 고통은 역사의 그림자로 남는 법인데 성군 세종의 시대라고 해서 부정과 부패, 민생의 고통이 없었을 수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흔적에서 오늘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욕망이 사라지지 않은 중생계이긴 마찬가지겠지만 일련의 기록들은 어쩌면 오늘날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다.

연륜인이자 작가인 이상우씨가 내 놓은 장편역사소설 <대왕 세종>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종 때의 일들을 맑은 창밖의 일처럼 자세하게 전해준다. 소설에서 드러나는 슬픈 스토리들이 '실용'을 비롯한 사료에 입각한 것이기에 현실감을 더한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내세운 기치는 '실용'이다. 세종도 목하 '실용'을 위해 왕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각오였다. 한글창제와 농사관련 각종 계측 체계와 기구의 제작, 측우기 등 기상관측 기구의 발명과 천문학에 대한 깊은 연구 등등. 그의 실용이 오늘의 실용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지향점의 문제이고 일관성의 문제다. 세종의 실용은 철저히 '어린백성'을

향해 있었다. 그러라고 해서 '대국'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큰 충성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국'을 섬기는 시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의 실용은 대국을 초월해 펼쳐졌고 뿌리를 내렸다.

#영토문제의 해법 원동력은 '자부심'

영토의 문제도 답이 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 이래로 멀쩡하게 우리 땅이었던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을 향해 조마조마하게 대응하고 있다. 세종은 집권 초기에 남으로는 대마도를 정벌했고 북으로는 김종서의 지휘 하에 6진을 개척해 옛 고려의 영토까지 팽창해 나가는 꿈을 펼쳤다. 자국의 영토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애착이 북방의 고토를 되찾는 원동력이었다. 소설 <대왕 세종>에서는 그 과정이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깔고 있다. 화적패의 여자 두목 홍득희의 활약상이 부각되면서 세종이 고려했던 신분해방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성인 석가모니가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 누대의 계급제도(사성제도)를 부정하고 인간 평등 선언을 했다는 것을 부러워하는 세종의 모습에서 진짜 실용이 뭔가를 절실하게 보여준다.

#쇠고기와 종교 문제, 그리고 어학바람

을 상반기 우리나라는 '쇠고기 문제'로 들끓었다. 지금도 식지 않은 그 문제. 경우는 다르지만 세종 때에도 '쇠고기 문제'가 있었다. 당시의 농경사회에서 소는 절대적인 자산이었다. 그래서 도축이 금지될 수밖에 없었지만 공권력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도살이 횡행했다.

대왕 세종(전3권)

이상우 지음/집사재 펴냄/각권9800원

태평성대는 있는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근접해 있을까? 우문(愚問)이다. 태평성대는커녕 날마다 '민생고'의 아우성이 들끓는다. 고유가 시대, 부동산과 건설경기 침체, 각종 세금인상, 소비자물가의 폭등 거기에 종교편향까지...

과거 민생의 고통이 없던 시절은 있었을까? 없었을 것이다. 인간의 세상은 욕망에 의해 지속되고 욕망이란 개인적인 집단적인 집착과 불만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욕망의 억제 그리고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해탈이라고 한다. 진정한 태평성대란 그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두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대일 것이다. 그래서 진짜 태평성대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중생계가 온전히 불국토가 되기 전에는.

세종은 농사 의존도가 낮은 산악이나 북방의 유목민들에게는 융통성 있게 소의 도축을 허용함으로써 관대함의 가치를 보여 주었다. 소설을 읽는 동안 독자는, 대신들의 무자정적인 반대와 세종의 행편에 따른 정책조율의 대가야 왠지 낯설지 않음을 느낄 것이다.

그 때도 어학 바람이 불었다. 백성들을 위한 '나랏말' 창제에 강한 의욕을 가졌던 세종이 오랑캐의 말이라도 깊이 연구하여 그 쓰임이 편리하고 효용적이라면 받아 들여야 한다고 입장 연설을 한 뒤 집현전을 중심으로 어학열풍이 불었던 것이다. 집현전에 스님들이 들어와 범어를 가르치고 여진의 평민들이 들어와 원어민교사 노릇을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세종 때에 지금 불교계를 분노하게 하는 종교편향도 있었을까? 굳이 지금의 개념과 같은 편향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불교와 유교 사이에 앉은 왕의 고민과 대신들의 강경한 척벌론들이 세종대에 적지 않은 이슈였던 것이다.

역사는 순환이다. 500여 년 전의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오늘로 이어져 있고 오늘의 모든 일들이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소설 <대왕 세종>은 세종의 시대에 일어난 왕과 민초들의 고민과 애환을 '인간'의 입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온 우리의 생명 행복 하길”



그물코 인생 그물코 사랑
도법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펴냄 | 1만5000원



'눈 내리는 한 밤중에 진리의 스승은 말씀하셨네. 내가 밝힌 생명평화의 등불로 온 누리의 생명이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발원하라.'

있다'고 말한다.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중생이 자연과 우주의 어울림 속에 공존하는 이 미지(생명평화)로 고를 구원한다. 스님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피의자는 종교계"라고 말한다. 올바른

생명평화의 벼에게 존재 실상 공생의 나눔 전해 '100대 서원문' 절명상용 CD등 실천의 길 제공

벼에게 존재 실상의 근본이 되는 공생의 나눔을 전해는 도법 스님(사진)의 탁발승게이다.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정체를 찾고자 18세에 출가한 이후 구도의 길을 걸으며 그 실상은 보편적인 문제임을 알았다. 스님의 화두는 너나없이 풀어야 할 삶의 과제였던 것이다.

스님이 생명평화탁발승게를 펼친 지도 다섯 해가 되어 간다. 한국 불교 개혁과 생명평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을 꼽으려면 단연 '도법 스님'이 첫 손에 꼽힌다.

도법 스님은 "국가·종교·이념·정의·불의·선한 따위의 인위적인 관념이 만들어진 이후, 나는 어떻게 이루어진 존재인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그 해답은 중중무진(重重無盡)한 불일불이(不二)의 끊임없는 연기관계, 인드라망에

른 방향을 중심에서 제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의 현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진리를 펴는 정당한 것이다.

<그물코 인생 그물코 사랑>은 '생명평화경(經)' 이고자 한다. 불교의 세계관과 철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100가지 문안을 제안한다.

부록으로 함께하는 '백대서원문'과 'CD'를 활용해 절 명상을 할 수 있다. 메시지를 듣고 음미하면서 인드라망 연기관과 자비행으로 상생의 활동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생명평화의 시작은 '지금 여기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이다. 온전한 내 삶이 이웃과 세상으로 퍼져 나가갈 때 자기완성과 더불어 사회완성을 실현하는 무애자재한 삶이라고 전한다.

가연숙 기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종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전통
조상의 열과 눈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0531985-1135 / 0541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치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도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죽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계교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경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 (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중풍 수술.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합,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조계종 77조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지

▶▶▶ 전등록 전5권 / ▶▶▶ 무문관 / ▶▶▶ 벽암록 / ▶▶▶ 천부경 / ▶▶▶ 금강경
▶▶▶ 신심명 / ▶▶▶ 중도가 / ▶▶▶ 반야심경 / ▶▶▶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 환단고기 전5권 / ▶▶▶ 범용선사 심명 / ▶▶▶ 선가귀감 / ▶▶▶ 법성계
주머니 속의 심경 /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복산에 첫눈이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복채로세상살음복사함 / 달다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조계종 77조
전강 대선사님 법어집

이 책은 지혜 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법거량과 법문, 일화를 인가 제자인 대원 선사님께서 재조명하여 보인 것입니다.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인 전강 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달다

대원 선사님과의 특별한 인연과 고수명찰감이 어우러진 두 분의 법거량도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선량과 같은 지혜로 수놓은, 최상승법의 자취없는 문양과 향 없는 향기에 흠뻑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 달다 >는 선(禪) 수행자들에게 10년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78대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02-3494-0122 www.zenparadise.com